

# 연필보다 평화

미케일라 월킨스  
(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)



이 이야기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.

“구주의 속죄는 회개해야 하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.  
속죄는 또한 용서해야 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.”  
칠십인 정원회의 케빈 알 던컨 장로, “용서라는 치유의 연구”, 『리아호나』, 2016년 5월호, 35쪽.



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내 준 아리아 알, 고마워요!